

### 한형조 무문관 탐방

#### 백장의 여우

百丈和尚凡參次，有一老人常從衆說法，衆人退，老人亦退，忽一日不退，師遂問，而前立者復何人，老人云，諾，某甲人也，於過去迦葉佛時，曾住此山，因學人問，大修行道人遺落因果也無，某甲對云，不落因果，五百生野狐身，令請和尚代一轉語，貴說野狐，遂問，大修行道人遺落因果也無，師云，不落因果，老人於言下大悟，作禮云，某甲已脫野狐身，住在山後，敢告和尚乞依亡僧事例，師令維那白告衆，食後送亡僧，大衆言議，一衆皆安，涅槃堂又無人病，何故如是，食後只見師說法，至山後墾下，以杖挑出一死野狐，乃依火葬，師至晚上堂，舉前因緣，黃髮便問，古人錯祇對一轉語，墾五百生野狐身，轉轉不錯，合作箇甚麼，師云，近前來，與伊道，黃髮遂近前與師一掌，師拍手笑云，將謂師發赤，便有赤發胡。



無門曰：不落因果，爲甚墾野狐，不落因果，爲甚說野狐，若向者裏得一隻眼，便知得前百丈贏得頭流五百生。

頌曰：不落不昧，兩采一餐，不昧不落，千錯萬錯。

\*백장이 설법하는 자리에 한 노인이 있어, 늘 대중과 함께 앉았다가 자리가 파하면 따라 물러가곤 했다. 그런데 그날은 물러가지 않고 혼자 남아 있었다. 백장이 '대체 당신은 누구요'라고 묻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예, 저는 사람이 아니라

오며 말했다. '오랑캐 수염이 붉다는데, 여기 바로 그런 놈이 있었군.' '나 해가 말한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不落因果)', 승부는 마찬가지. '흔미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不落不昧)', 틀렸기는 마찬가지.

이 게임은 인과에 '떨어지느냐(落)'와 '흔미하느냐(昧)'의 두 글자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불교는 십이인과(十二因果)를 말한다. 세계는 인(因)과 연(緣)의 복합적 고리로 얽혀 있다. 이 교설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계전반의 과정에 주체인 나, 중심인 에고(ego)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큰 수행을 통해 인과와 법칙을 증득(證得)한 사람은 바로 그 인과의 고리를 벗어나 절대적인 자유를 얻는다 아니냐. 이 물음에 대해 노인은 '불락인과(不落因果)', 즉 인과를 벗어난다'고 대답했다가 여우거죽을 덮어썼다. 백장은 그를 구제하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 '정답은 불매인과

다. 옛날 가섭불이 살던 시대에 이 산에 주석하고 있었사는데, 어느날 학인 하나가 '위대 한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질까'라고 물길래 제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느니라(不落因果)'하고 대답했다가 오백세를 여우의 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우의 몸을 벗을 수 있도록 국편 전환의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노인은 (옛날의 그 물음을 다시) 물었다. '위대한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질까?' 백장이 이에 대해 '인과에 흔미하지 않느니라(不落不昧)'고 대답했다. 이 말에 노인은 크게 개쳤다. 큰절을 올리면서 '제가 이제 여우 몸을 벗었습니다. 그 곁에다가 뒷산에 있을테니 산승의 예에 따라 잘 화장해 주십시오.' 부탁했다. 백장은 유나에게 목관을 두들겨 대중에게 장례가 있다고 알리게 했다. 다들, 아니 아픈 사람도 없이 편안하게 무슨 말씀이냐면서 여러동절해 했다. 대중은 백장의 인도로 뒷산 바위 아래로 갔다. 거기서 지팡이로 죽은 여우 한마리를 뒤져내 화장해 주었다.

백장은 저녁에 법당에 올라 사대의 경위를 일러주었다. 이를 듣고 황벽이 물었다. '그 노인이 말 한마디를 잘못해 오백세를 여우로 삼았는데, 만일 제대로 대답을 했더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백장이 '이리 가까이 오게, 내 일러주지' 했다. 황벽은 다가가면서 스승에게 뒷산 한 대를 읊었다. 백장이 손뼉을 치고 웃

(不落因果)이다. 수행을 통해 학인은 물리적 세계와 일상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변하는 것은 세계를 보는 눈이고, 삶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이다. 그는 여전히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며, 피곤하면 누고 졸리면 잔다.' 이 말에 노인은 오백세의 의문을 풀고 해방을 얻었다.

그런데 왜 황벽(黃髮希運?~850)이 못 마땅한 얼굴로 나서고 있는가. 그리고 스승의 뺨을 치는 무례한 행동은 어인 일이며, 얻어맞은 백장의 너털웃음은 더더욱 어인 일인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기실 이 제2회 화두의 눈은 여기에 있다. 황벽은 백장의 자상한 깨우침 또한 '평지에 편히 일킨 종파요, 갈경한 삼갓에 들이낸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백장이 그걸 모를 리 없다. 알고서도 범한 것이다(知而故犯). 그것을 알려 주려고 황벽을 불렀더니, 황벽이 미리 알고 선수를 쳤다. 백장은 대견한 제자에게 박수와 웃음으로 응답했다.

백장이 던진 감탄의 연구를 읽기가 좀 까다롭다. 오랑캐라는 말에는 두 가지 함의가 얽혀 있다. '달마와 같은 비범함'과 '해비도 몰라보는 후레자식'이 그것이다. 황벽을 일러 '스승을 치는 막되먹은, 그러나 비범한 그릇'이라 했으니 억양(抑揚)이 절묘한 찬사라 아닐 수 없다. <한글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삼학(三學) 法數로 배우는 불교

실천에 두고 있다. 삼학은 불교 수행의 전체적인 틀로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아서 지혜를 이루는 것으로 계학(戒學) 정학(定學) 혜학(慧學)이라 한다. 여기서 학(學)은 글자 그대로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간에서 말하는 '학'과는 매우 다른 것이 세간의 학문은 지식과 기술을 외부로부터 배우는 것에 비해 여기서는 내적이 수행을 배우는 것이다. 삼학은 모든 불교도

### 수행의 필수덕목 계(戒) 정(定) 혜(慧)

달린 것.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청정케 할 수 없다는 <법구경>의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더럽혀진 자는 더럽혀진 자 자신에 의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인간에게 덮어씌운 온갖 더러움과 어둠을 인간 스스로가 정화시키고 밝혀서 구원에 이르러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을 불교에서는 삼학의

### 오계 계학의 기본... 생명처럼 여겨야

들이 필수적으로 닦아야 될 으뜸가는 실천 덕목으로 생활의 근간으로 삼지 않으면 안될 만큼 중요하다. 먼저 계학에 대해서 말해보자. 계의 원어는 실라(sila)에 비롯된 말로 '행위의 습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은 지악수선(止惡修善) 즉, 모든 악을 그치고 착한 행을 닦는다는 데 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닦여주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다른

### 법數로 배우는 불교



洞山無來客

◇통칙스님 작 '동산스님의 더위와 추위' 종교처럼 안지키면 심판 받는 식의 남으로부터 받는 계가 아닌 스스로 발해서 스스로 받아 지키는 발계(發戒)이다. 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不殺生) 남의 물건을 취하지 않는 것(不偷盜) 착한 음행을 하지 않는 것(不淫行) 거짓말 하지 않는 것(不妄語) 술마시지 않는 것(不飲酒) 등 5 계이다. 이 오계는 다시 대승불교에

### 이제 열 <유미선원장>

들어와 10선계와 보살48경계로 늘어나 자신만을 위한 선행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남을 위하는 실천행으로 강조된다. 이것은 뒤에 설음의계(攝律儀戒:악을 그치는 계) 십선법계(攝善法戒:선을 행하는 계) 십증생계(攝衆生戒:중생을 이익케하는 계)라는 삼취정계(三取淨戒)로 정리되기도 했다. 한편 출가한 스님들은 교단 생활에 따른 좀더 엄격한 출가계가 요구되어 비구가 250계 비구니가 348계를 지키게 되어 있다. 계는 출가스님에게 있어서선 재가 불자에 있어서선 생명과도 같다. 만약 계를 어겼다면 즉시 참회해야 한다. 계를 함부로 어길것 같으면 후에 나쁜 과보를 받게 됨은 물론 수행을 해도 절대 깨달음에 들지 못한다. 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다음의 삼학 가운데 정학과 혜학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계는 매우 소중한 것이어서 계를 받을 때 '차라리 선명을 버리지 않겠음'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과거 스님들 중에는 품속에 작은 칼을 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었다. 그 칼을 계도(戒刀)라고 하는데 만약 자기의 손이 계를 어기면 손을 자르고 입이 계를 어기면 입을 찢었다는 맹세물이다. 옛 분들의 말씀에 부처님께 귀의해서 계를 받은 몸은 계체(戒體)가 되어 청정신이 된다고 하였다. 계의 청정,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 "큰 수행자는 인과에 어둡지 않다"

#### 세계를 보는 눈 새로워 질뿐 일상적 규범 변함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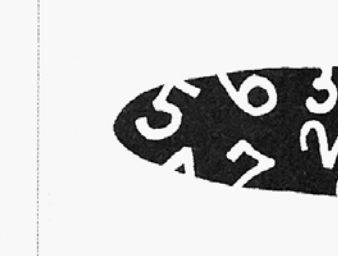
다. 옛날 가섭불이 살던 시대에 이 산에 주석하고 있었사는데, 어느날 학인 하나가 '위대 한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질까'라고 물길래 제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느니라(不落因果)'하고 대답했다가 오백세를 여우의 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우의 몸을 벗을 수 있도록 국편 전환의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노인은 (옛날의 그 물음을 다시) 물었다. '위대한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질까?' 백장이 이에 대해 '인과에 흔미하지 않느니라(不落不昧)'고 대답했다. 이 말에 노인은 크게 개쳤다. 큰절을 올리면서 '제가 이제 여우 몸을 벗었습니다. 그 곁에다가 뒷산에 있을테니 산승의 예에 따라 잘 화장해 주십시오.' 부탁했다. 백장은 유나에게 목관을 두들겨 대중에게 장례가 있다고 알리게 했다. 다들, 아니 아픈 사람도 없이 편안하게 무슨 말씀이냐면서 여러동절해 했다. 대중은 백장의 인도로 뒷산 바위 아래로 갔다. 거기서 지팡이로 죽은 여우 한마리를 뒤져내 화장해 주었다.

### 불교와 수학

#### 9 법화경의 수 김용운

인류 사상 최대의 과학자로 일컬어지는 뉴턴은 역학법칙과 미적분학을 발견해 이론 물리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그것은 행성의 불규칙적인 운동, 혜성의 주기, 일월성, 바닷물의 간만 현상... 등 거의 모든 천체운동을 체계적으로 명확히 설명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도였고 그의 업적은 하나님의 창조 내용을 찾아 내기 위한 것이며 특히 말년에는 천지창조의 시기를 밝히는데 정성을 쏟았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의 계산에 의하면 처음에는 창조의 시기를 6천년전, 그후 계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약 8천년전 정도로 수정했다. 그의 과학 업적에 비해 놀라울 만큼 유치한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과학으로 발견된 가장 먼 성운은 지구로부터 수조광년 떨어진 것으로 그 지름이 1억 광년에 이른다. 뉴턴이 생각한 하나님은 터무니 없이 왜소했었던 것이다. <법화경>(서품제)에는 석존의 가르침이 현재에 멈추지 않고 과거→현재→미래에 걸치는 교화 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불교적인 과거→현재→미래의 시간관이 여실히 나타난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 삼천진점점 광년 척도로 계산 못해

#### 무시무종의 과거·현재·미래 인연 시사

다. 가령 '화성보처유(化城喻處)'의 '화성유종제(化城喻品第七)'에는 석존의 교화가 먼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왔음을 밝힌다. 그것은 삼천진점점(三千塵點劫)이라는 먼 옛날에 석존이 태어나 그 최고 대각 경지에 이르렀고 그 교화가 오늘에까지도 이어져 있음을 말한다. 삼천대천세계의 국토를 갈아 이 모든 지중(地種)으로 먹을 만 들어 일천 국토 지나서야 한 점 떨어어 이리 되풀이해 이 더 못하고, 점 떨어구 안떨군 이 모든 국토들을 다시 동개 한 티끌로 일곱 천대도 이 티끌 수효보다 그 점이 더 길리라.

#### 이제 열 <유미선원장>

이 30초, 여기에 전 지구상의 물질을 원자의 상태로 갈았을 때의 개수를 곱하는 것이 1겁이다. 그리고 그것에 3천을 곱한 수...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결과는 광년의 척도(尺度)로 계산한다 해도 헤아릴 수 없는 먼 과거의 시간이다. 또한 '여래신력품'(如來神力品)에서는 미래세계에 대한 석존의 교화가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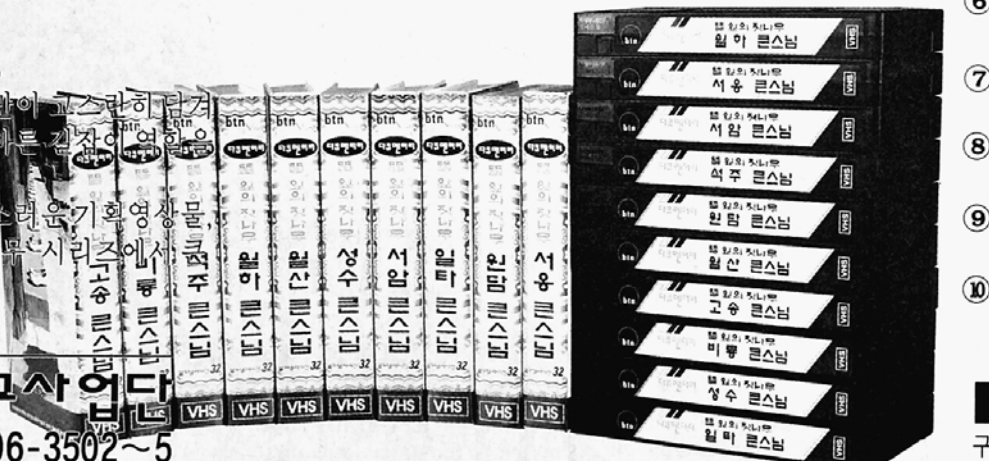
1. 그때, 천 세계의 미진(微塵)과 같은 수의 보살마하살-명으로부터 솟아나온 아들이다-이 부처님 명전에서 일심으로 합장하여 존안(尊顏)우러러 뵈고 부처님께 아뢰오되, 2. '세존이시여 저희가 부처님의 멸도하신후, 세존의 분신(分身)들이 계시는 국토-멸도하신 그곳에서 마땅히 이 경 두루 설하오리니, 어찌서 이노. 저희 또한 스스로 이 참되고 청정하고 큰 법을 얻어, 수지·독송·해설·서사해, 이를 공양하고자 바랄이로소이다' 지용(地涌)의 보살들은 석존의 가르침을 전하는 불사(佛使)이다. 이들은 수가 천의 세계를 갈아 극미의 미진과도 같은 많은 수다. 이처럼 엄청난 큰 수를 등장시킴으로써 '현재'의 모든 현상이 그만 많은 인연의 결과이며 또한 이 순간의 일이 미래에 엄청난 인연으로 얽혀 전개되어 감을 시사하고 있다. 불교는 이 엄청난 수의 바다에서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철학을 실감해 온 것이다. 뉴턴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뭐라고 했을까?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 불교TV 영상물은 한 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불교TV 영상물에는 역사의 깊이가 녹아 있습니다. 고승대덕의 법문이 살아 숨쉬습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영상물에는 한국문화의 정수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의 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하도록 기획·제작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어느 순간에 내놓아도 자랑스런 기쁜 영상물. 불교TV 특집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에서 스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 보십시오.



지혜의 빛·자비의 생 bf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706-3502~5

###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 1 서용 스님 (고승추림 방장)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은사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가르침 받은 성찰의 소리
  - 2 서암 스님 (전 조계종 중장)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불자가 스님의 고고한 자태와 함께 청명한 삶을 조명
  - 3 월암 스님 (조계종 중장) 달린트 고독심 불자가 풍도사를 배경으로 스님께 청해 듣는 이시대 깨침의 말씀
  - 4 석주 스님 (철보시 조실) 동화적이 경제불자가 스님의 구도정신을 탐색하는 감동의 영상
  - 5 월산 스님 (불국사신 조실) 영남대 김성규교수가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신이 되어 버린 스님의 삶을 취재
  - 6 상수 스님 (법수선인 조실) 승가대 승천우고사와의 대담으로 스님의 독특한 수행과정의 전개되는 감동적 영상
  - 7 고승 스님 (파계사 조실) 수행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달린트 영남대 불자에게 설교
  - 8 비류 스님 (월정사 조실) 관음보살상은 자비스런 깨달음의 말씀을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진 소장가 대담
  - 9 원암 스님 (덕숭추림 방장) 관화가 황남대 불자가 속세의 번잡이 닿지 않는 스님의 산중정지를 전함
  - 10 월타 스님 (전 조계종 전계대인상) 현대인의 가슴에 속속한 봄기운은 청량감을 주는 말씀을 언화장세계 임기준 대표가 전함
- ※ 위 차례는 방송된 순서임
- 비디오 테일·10개 1세트 / 구매가 : 170,000원  
구입문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02)706-3502~5